

# 元老科學技術者의 證言

3

KIST는 전체 學園과의 有機的 連關맺어야



崔奎南博士篇

—完—

## ♣ 科技處 발족

6.25事變으로 말미암아 千辛萬苦 끝에 이루어진 내 뜻이 한때 挫折은 되었지만 그후도 科學技術綜合機構 設립에 대한 構想은 한시도 버리지 않았다.

나는 1964년부터 滿 4년 8개월간 經濟科學審義會 常任委員으로 있는 동안 科學技術院 設립에 대한 具體案을 세 차례나 냈었다.

第 1案은 科學技術院을 지금의 經濟企劃院과 마찬가지로 「院」 규모로 해서 당시 總務處長官 李錫濟씨에게 보였었다.

이들은 李錫濟씨는 날더러 『이案은 너무肥大하고 現體制에 맞지 않으므로 고쳐야한다』고 하기에 미지근한점을 다시 補完하기를 두세 차례한 후 大統領에게 브리핑을 했었다.

차대통령께서는 그후도 張基榮씨와 崔亨燮씨 그리고 나를 오라해서 科學에 대한 브리핑을 자세히 들으신적도 있었다.

이러한 일들이 거듭한 끝에 1967년 4월 21일 科學技術處가 정식 발족되었다.

戰爭(6.25事變)으로 빨리 이루어지지 못한 내 뜻이 經濟科學審議委員會 때 비로소 科學技術處가 탄생한 셈이다.

30年間の 내宿願은 바로 이러한 機構를 만들어 놓자는 것이어서 그동안 내댈만큼 애를 다 썼다

하겠다.

내가 원래 「院」 규모로 推進했던 것과는 달리 「處」로 轉落은 되었지만 우리나라에 科學技術 專擔機構가 생긴것이 비단 나만 움직여서 이루어졌겠는가. 1945년 8.15解放이전부터 科學技術과 關聯有志들의 努力이 動員되 結晶이리라——

## ♣ KIST 胎動期

1964년 越南戰이 激化一路에 있을 무렵 KIST를 設立하기 위한 準備가 한창이었다.

그해 우리나라는 KIST 設立 準備委員會를 구성하고, 美國에선 財政支援協議次 존슨 大統領 特別顧問 호닉박사를 派韓, 設立妥當性을 調査케 했다.

KIST 設立 準備委員長인 나는 호닉씨의 迎接호스트가 되어 그를 맞아 諸般協議를 마쳤는가하면 KIST 設立 敷地 마련을 위해 당시 農林長官 朴東昂씨를 찾아 林業試驗場을 KIST 敷地로 사용케 하여 줄것을 요구하는 등 東奔西走 뛰어다녔다.

또 우리 準備委員會는 수차례의 會議에서 KIST의 運營方案을 놓고 論議를 거듭했다. 그러나 KIST 運營方案에 대한 意見調整은 쉽지 않았다.

오랜 시간이 흘러간 지금 새삼 KIST 運營方案을 짜고 나와 準備委員들간의 異見을 날날이 밝히고 싶지 않으나 그때 내가 主張했던바를 기억

나는대로 간추려 본다.

準備委員會議에서 가장 論難의 焦點은 KIST 設立으로 인한 經營收支였다.

이때 準備委員중 일부 人士는 KIST 設立으로 몇 億원을 벌어들여 自給自足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그런 主張에 反對하고 나섰다. KIST는 純粹한 研究機關으로 出帆되어야지 돈을 벌이를 앞세워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리고 研究機關은 연구를 하는 가운데 돈도 생길 수 있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收支均衡을 위한 수단 동원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나는 KIST와 각 大學校는 有機的인 連關을 맺고 優秀한 사람들을 KIST에 보내 研究를 하게 하고 研究한 實績을 가지고 서울 大學 등 他 大學에 가서 學位를 받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그렇게하므로 KIST 研究員은 어떤 目的을 가지고 밤을 새우며 研究할 수 있지 일반 월급장이 취급으로는 참된 研究實績이 나올수 없다 했다.

그러나 내 主張과는 달리 일부 人士는 돈을 벌어들여 經營의 收支를 맞추는 同時에 學園이 KIST에 들어오는 것을 귀찮게 여겼다.

물론 그들도 내가 強調한 學院과의 有機的인 連關을 맺는것에는 原則的으로 옳다고 생각했으리라 보고나 이런일들이 잘안되었다. 그후 나는 KIST 設立 準備委員長이므로 準備만 마치고 물러난 것이다.

또 아이디어를 提供하기 위해 들어간 經濟科學 審議會議에도 約 5年間 있었으므로 이제 내 아이디어는 늙었다고 판단,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새 사람이와서 새 아이디어가 있어야겠다고 여기고 그곳에서도 물러났다.

내 나이 80살이 넘는 지금도 KIST에 대한 關心은 많다. 外部활동을 앓고 있는 나는 KIST의 움직임을 新聞報道에 의해서만 알고 있을뿐 그 의는 궁금하다.

참고로 이기회에 미쉬건 大學의 예를들어 본다. 미쉬건 大學만 하더라도 「리쎌치 스태프」이 있다.

미쉬건 州에 있는 각 工場은 미쉬건 大學만한 研究設備가 되어 있지 않다. 더우기 미쉬건 大學에서 얼마떨어져 있지 않은 포드 工場에서도 設

備가 없으므로 미쉬건 大學에 研究를 위촉한다.

그러면 미쉬건 大學에서는 研究課題를 충분히 檢討한후 傳擔教授로 하여금 研究케하여 報告書를 낸후 돈을 받는다. 물론 그렇게 하므로 大學 經營의 일부는 보탬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곳서 비즈니스式으로 研究는 아니한다.

왜냐하면 비즈니스式으로 研究하면 科學이 썩게되고 科學이 썩으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내 主張은 KIST는 收支마찰 생각에 앞서 純粹한 研究機關으로써 各 大學과 有機的인 연락을 가지고 優秀한 學生들에게 3年이나 5年間 研究케하여 프로덕션이 나오면 學校에 가서 學位를 받도록 해야한다고 말하고 싶다.

즉 數百億을 들여 만든 KIST는 學校와의 障壁을 깨고 有機的인 연관으로 兩側 利益을 圖謀해야할 것이다.

### ♣ 韓國科學界展望

韓國科學界를 내다보면 派閥이 생기고 있는데 하루속히 이를 打破해야겠다.

先進英國이나 프랑스를 가볼것 같으면 所謂 科學擔當 最高行政責任者는 처음엔 科學者였던 것을 지금은 科學者가 아닌 經濟人이나 科學에 대한 理解있는 사람을 起用하고 있다. 가까운 日本만 하더라도 經濟專門家가 科學技術廳長으로 있는 것을 내가 訪日했을때 보았다.

이와같이 先進外國에서 科學者를 行政 책임자로 하지 않는 것은 그나라의 科學技術發展過程에서 생길수 있는 派閥로 인한 폐단을 事前防止하는데 있다고 보겠다.

또 한가지 指摘해두고 싶은것은 外國에서 받은 PHD 문제이다.

나의 솔직한 심경을 말할 것 같으면 美國에서 따낸 PHD에 대해서 높이 評價하지 말라 하고 싶다.

美國에서는 두사람에게만 Ser를 부친다. 大統領에게, 그리고 權威있는 教授에게 Ser가 붙여진다. PHD는 學門의 始作, 始發點이라고는 불

☆ 特別企劃 ☆

수 있으나 그것을 保持한 사람이 모든 權威者라고는 볼수 없다.

即 PHD·Dr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研究業績이 있는 教授가 더 重要한 것이라고 강조해둔다.

10餘年前 權重輝씨와 尹日善씨가 서울大學校에 몸담고 있을때이다.

나는 그분들에게 『韓國엔 엘리트가 많은데 이중 科學하는 사람은 대개가 貧寒하며 돈있는 사람의 자식들 대부분이 어렵고 시끄러운 科學專攻은 피하고 쉬운 經濟나 공부해서 자기 아버지 事業을 계속하면 그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科學振興을 위해서는 科學方面엘리트를 최소한 50명만이라도 뽑아 官費留學을 보내야 되겠다』고 했다. 이같은 나의 提案에 그들은 『官費해택까지 주는데도 結果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하기에 나는 『披雜物이 있다해서 장을 못담구지는 않는다』며 『일단 그들을 믿고 50명중 몇명의 희생자가 나오면 損害를 보더라도 官費留學生을 뽑아야 한다』고 말한적이 있다.

그자리서 또 나는 『7년복은 속을 구하려 다니지 말고 지금부터 속을 심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늦게나마 몇년전부터 官費로 海外留學을 시킨다는 말을듣고 펍 다행한 일이라고 여겼다.

♣ 學園엔 24時間 불을켜라

내가 文敎部長官으로 있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하던 大學濫發문제 였다고 하겠다.

당시 社會一角에선 大學亡國論까지 나왔다.

그런가하면 나는 國會에 불려가 大學을 줄이라는 攻駁을 다들어야 했다.

이때 나는 國會에 나가 對答하기를 『어려운 집엔 자식이 많은 법이다. 어려운 살림속에 낳아놓은 자식중엔 榮養失調에 걸린 아이도 있을 것이고 健康히 잘 자라는 아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大學도 어려운 속에서 모처럼 大學施設을 해놓은 것을 줄일수 없다』며 『앞으로 내가 이것을 育成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나의 國會答辯이 있자 某日刊紙 가십欄에는 「名 對答」이라고 까지 報道되었었다.

이렇듯 내가 文敎長官으로 있을 때 豫算따기도 어려웠지만 大學줄이라는 것이 가장 難題였었다.

그때가 결코 오랜 歲月이라고 할 수 없는 지난날을 우리 다같이 한번 回顧해보자.

여기 저기서 들먹이는 大學亡國論——그런속에서 많이 輩出되는 大學卒業生—— 社會에서는 收容能力이 없어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倉庫에 묶혀야 했었다. 그런데 60年代이후 15餘年 동안 우리나라는 世界先進國과 對等한 經濟發展을 이룩하였고 이에 偏乘하여 倉庫에 있었던 在庫人力이 다 팔렸다.

即 經濟發展의 밑천이 된것은 바로 이 在庫人力 때문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技術習得을 시키는 데도 어느 정도 教育을 받은 자라야 가능한 것과 같이 우리는 大學亡國論속에서도 高度의 技術을 받아 들일수 있는 態勢를 갖추어 놓았던 셈인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無知蒙昧한 아프리카 人들과는 다르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하면 비록 國會에서는 호되게 두드려 마졌지만 오늘날 다시 생각해보면 당시 教育中心의 國家政策이 옳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나의 말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고 1975년 5월 尹天柱서울大學校總長이 就任하던날 서울대 전幹部들과 함께 飲食을 드는 자리서 나눈이야기이다.

또 그자리서 나는 여러분이 누구보다 實感하고 있는 20餘萬名의 再修生문제는 어떻게 할것인가고 묻기도 하며 이의 廢端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서울大學校의 定員을 3분의 1정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그리고 나는 어느날 밤 9시 講演次 東崇洞(前 서울大 本館)敎授會館을 찾을때 느낀 所感도 곁들여 들려 줬다.

『오면서 내가 서울대캠퍼스를 둘러보니 각 校室은 말할것도 없고 圖書館까지 불이 꺼져 있어

마음이 무척 아팠노라』는 말에 이어 『서울大學이 캄캄하면 우리民族의 將來가 캄캄한것이나 다를바 없으므로 學園은 24시간 불이켜져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2部制를 채택, 夜學도 좋지 않겠느냐』 했더니 모두들 反對했다.

서울大學校의 施設과 教授 밑에서 공부하겠다는 아이들을 방황하지 못하게 2部制로하여 學生募集 定員을 늘이지는 내 주장을 그들이 반대하는 理由는 단순히 「서울大學校」라는 權威意識 때문이었다.

물론 그들의 뜻도 一理는 있었다. 그러나 나는 어떠한 權威問題보다는 서울大·高麗大·延世大·漢陽大등의 既存 施設을 최대한 활용하여 教育을 廣과幅으로 널리 普及한다는것이 더 重要하므로 夜學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 했었다.

그런데 지금 文教政策이 어떠한가.

뒤늦게나마 그 救濟策으로 내가 主張한바대로 定員을 늘이고 있지 않은가.

한편 教育의 擴大普及으로인한 効果는 經濟發展에만 있는것이 아닌것같다.

몇해전 나는 당시 美 8軍司令官 홀링스씨와 某處에서 만남 機會가 있었다.

그는 매우 勇敢한 職業軍人임과 동시에 教育者이기도 하다.

그를 만난 나는 한때 教育者였었다는데에 親近感을 갖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어려운 살림살이에서도 教育을 널리 普及시켜 經濟發展의 밑거름이 되었고 高度의 技術을 받아 들일수 있는 態勢를 갖추어 놓았다』고 하자 그도 내말에 肯定的이었다.

그는 『자기가 韓國에와서 軍事教育을 가르쳐본 결과 亦是 教育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3年間 가르칠것을 6個月 가르치니까 되더라』며 教育의 效果는 經濟發展뿐만 아니라 軍事的側面에서도 必要하다고 강조 했었다.

## ♣ 科學者는 謙遜해야

後輩들에게 주고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現實에 滿足하라고 말해두고 싶다.

나는 中學校·專門學校를 비롯 大學校를 거친 教育者로서 學生를 가르쳐본 經驗에 依하면 現實을 外面하고 不平을 하는 學生은 成功하는 率이 적었다.

이런것으로 미루어볼때 주어진 現實에서 最善을다해 自己責任을 完遂하는 사람이 成功한다.

科學界에서 世界的으로 有名한 사람을 들라면 뉴톤·갈릴레이, 아인슈타인등 세명을 손꼽을 수 있다.

갈릴레이 같은 사람은 眼鏡店 職工으로 있으면서 그 現實에 最善을 다해 屈折望遠鏡을 만들어 木星의 衛星및 太陽黑點을 발견하여 世界的인 學者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다는 타령만 늘어놓것이 아니라 갈릴레이와 같이 自己에게 주어진 與件 밑에서 最善을 다하여 부지런히 努力하고 참으면서 前進해야겠다.

即 實驗室등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고 不平만 털어놓고 게으름을 피우면 이는 곧 自己拋棄나 다름없게 왜 成功을 못한다.

다음 우리 科學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謙遜한 마음 가짐이 필요하다.

뉴톤은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모래사장의 모래 한 주먹 정도에 不過하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이렇듯 世界的인 學者들이 謙遜한데 반해 우리나라 科學者들은 어떠한가.

모두 그렇다고는 볼수 없지만 일부 몇 사람은 新聞, 雜誌, TV등에 너무 置重, 조그마한 自己知識을 발표하여 얼굴을 날리고 한다.

科學者는 이때서는 안된다. 自己實力을 들어 내기 위한것 보다는 좀더 內實方向으로 나갔으면 한다.

끝으로 우리나라 科學者가 世界水準에 이룬 사람이 몇이나 있느냐이다.

科學者는 조그만 知識을 내세우기에 앞서 謙遜한 마음으로 우리나라의 科學界와 學界를 들여다보고 世界科學水準과 比較하여 우리나라 科學이 어느 程度인가를 알아야 되겠다.

<고침 : 6월호 본란 내용중 兩子論. 兩子力學은 量子論. 量子力學의 잘못임>